

2025.11.28 금요일 여호수아 10:1-14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오늘의 말씀 요약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자 예루살렘을 비롯한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했다. 여호수아는 밤새 행군하여 기습하고,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

예화 헨리 블랙커비는 말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실패를 맞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여호수아도 기브온 조약이라는 실수를 안고 있었지만,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셨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본문 묵상

1. **순종하면 세상의 반대가 따른다 (1-5절)**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서자 다섯 왕이 연합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세상이 미워한다(요 15:19).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옳은 길에 섰다는 증거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자.
2.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 (6-11절)** 여호수아는 밤새 행군했고, 하나님은 우박으로 직접 싸우셨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이다.
3.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12-14절)** 여호수아는 대담하게 "해와 달아 멈춰라!" 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에 응답되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는 기록은 이 기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

삶의 적용점

1.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유로 세상의 반대와 공격을 받아도 담대하자.
2.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고, 순종으로 동참하자.
3.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담대한 기도를 드리자.

기도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주님의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승리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11.25 화요일 여호수아 8:24-35

오늘의 찬송 새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오늘의 말씀 요약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후,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셨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온 회중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리 후에도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백성 됨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예화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했지만, 그것이 전쟁 무기로 쓰이는 것을 보며 깊이 후회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자신의 사망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죽음의 상인 죽다"였다. 그는 충격을 받고 남은 재산을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오늘의 노벨상이 탄생했다. 한 사람의 실수와 회개가 세상을 바꾼 선한 열매를 맺었다. 승리 후에도 언약을 잊지 않고 돌에 새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의 승리와 실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본문 묵상

1.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를 완성하다 (24-29절)** 여호수아는 단창 든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지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이었다. 아이성을 불태우고 왕을 처형하며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의 잔재를 남김없이 제거할 때 진정한 승리가 완성된다.
2. **승리 후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 (30-32절)** 승리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않고 에발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다. 번제는 죄 씻음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승리임을 고백하는 행위였다. 참된 승리는 예배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3. **모든 세대 앞에 말씀을 선포하다 (33-35절)** 남녀노소와 이방인 거류민까지 모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호수아는 단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다. 승리의 열매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삶의 적용점

1. 오늘 나를 괴롭히는 '아이성' 같은 죄의 잔재를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결단하자.
2. 승리와 성공 감사할 때에 먼저 제단을 쌓는 예배자로 살자.
3.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는 삶을 살자.

기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승패를 떠나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11.26 수요일 여호수아 9:1-15

오늘의 찬송 새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오늘의 말씀 요약 아이성과의 전쟁 승리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 연합하여 싸우려 했으나,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먼 나라에서 온 척하며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외적인 증거만 보고 판단한 채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맹세하였다.

예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지 물러는 하루에 한 시간씩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썼다고 고백했다. 결국 문제는 ‘보이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찾느냐’이다. 이스라엘은 곰팡이 핀 떡과 헤어져 신만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은?

본문 묵상

1. **승리가 교만을 부를 수 있다 (1-2절)** 여리고와 아이성의 연속 승리로 가나안 왕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나 승리의 계절에 오히려 더 큰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다. 영적 승리 후에 교만이 스며들면 분별력이 흐려진다. 승리할 때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2. **겉모습에 속지 말라 (3-13절)** 기브온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한 외형으로 이스라엘을 속였다. 낡은 옷, 곰팡이 핀 떡, 찢어진 부대는 그럴듯했지만 거짓이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려 한다. 외적인 성공, 감정,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3.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수한다 (14-15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한 문장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 급할수록, 확신이 들수록, 경험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 가장 확실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빼면 그것이 함정이 된다.

삶의 적용점

1. 승리와 성공의 때에 교만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자.
2. 사람과 상황을 판단할 때 외형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기준으로 삼자.
3.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라고 먼저 묻는 습관을 들이자.

기도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게 하소서. 승리할 때나 위기 때나 늘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묻지 않은 선택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11.27 목요일 여호수아 9:16-27

오늘의 찬송 새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늘의 말씀 요약 조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기브온이 이웃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분노했으나, 여호와와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켜야 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저주하여 대대로 나무 무 패고 물 길는 증으로 삼았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로 세웠다.

예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속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실수마저도 당신의 제단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본문 묵상

1. **실수는 피할 수 없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 (16-21절)** 이스라엘은 속았다는 사실에 격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깨뜨릴 수 없었다. 잘못된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실함은 감정보다 우선이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신다 (22-25절)** 기브온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고자 거짓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롬 8:28).
3.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26-27절)**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되었고, 포로 귀환 시대에도 느디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었다. 우리의 작은 신실함이 하나님의 크신 신실함을 세상에 증거한다.

삶의 적용점

1. 잘못된 선택으로 맺은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면 끝까지 지키자.
2.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리자.
3. 내 신실함이 주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자.

기도 하나님, 저희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오나, 주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마저도 주님의 제단을 섬기는 길로 바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